

# 개신교인 신앙 성장 도움 요인, ‘예배/설교’ 줄고 ‘미디어’ 가파르게 상승!

지난 넘버즈에서는 ‘한국인의 종교 인식’과 ‘비개신교인의 개신교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는데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개신교인의 교회 출석률(2012년 90% → 2023년 71%)과 주일 예배 외 활동비율(2012년 51% → 2023년 40%)은 감소하고 있으나, 가나안성도의 교회 재출석 의향과 교회 비활동자의 활동 의향은 각각 43%와 45%로 크게 낮지 않은 것이 희망적이다. 코로나 시기 전후로 신앙생활의 변화도 눈에 띈다.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으로 ‘예배/설교’ 요인은 줄고, ‘미디어’의 영향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신앙 활동도 ‘대면 모임’보다 온라인과 방송 청취 등 비대면 ‘매체’ 이용이 더 높았다.

이번 <넘버즈 209호>에서는 개신교인들의 교회 생활과 구체적 신앙 활동을 파악하는 한편 출석 교회에 대한 평가 즉, 만족과 불만 요인 분석을 통해 교인들의 니즈와 어려움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

##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넘버즈 발행 목차

- ①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인식
- ②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 ③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 ④ 목회자의 목회 활동 실태
- ⑤ 목회자의 목회 인식 및 라이프스타일

\*일정과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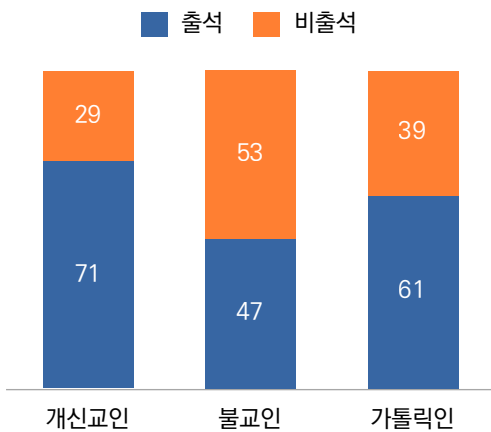
구분	개신교인 조사	비개신교인 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비개신교인
조사 지역	전국(Nationwide)	전국(Nationwide)
표본 규모	2,000명(유효표본)	1,0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표본 추출 방법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비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표본 오차	± 2.2% (95% 신뢰구간) (무작위 추출 가정)	± 3.1% (95% 신뢰구간) (무작위 추출 가정)
조사 기간	2023년 01월 09일 ~ 16일(8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연구/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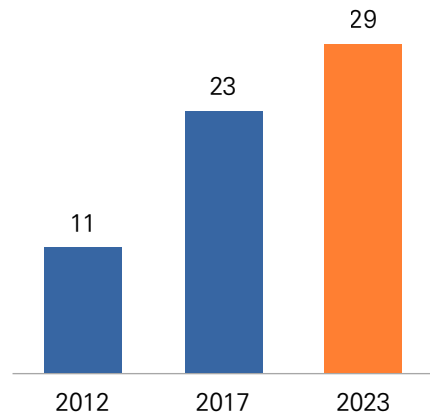
## [개신교인의 교회 출석] 교회(성당) 출석자, 개신교인 71%, 가톨릭교인 61%!

- ▶ 종교가 있는 만 19세 이상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교회, 사찰, 성당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종교시설 출석 비율은 개신교인 71%, 가톨릭인 61%, 불교 47% 순으로 개신교인이 가장 높았다.
- ▶ 지난 182호(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편)에서 제시했듯이 개신교인 중 가나안성도가 2012년 11%에서 2023년 29%로 크게 증가했는데, 최근 들어 가나안성도 급증세가 주목된다.

[그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사찰/성당 여부 (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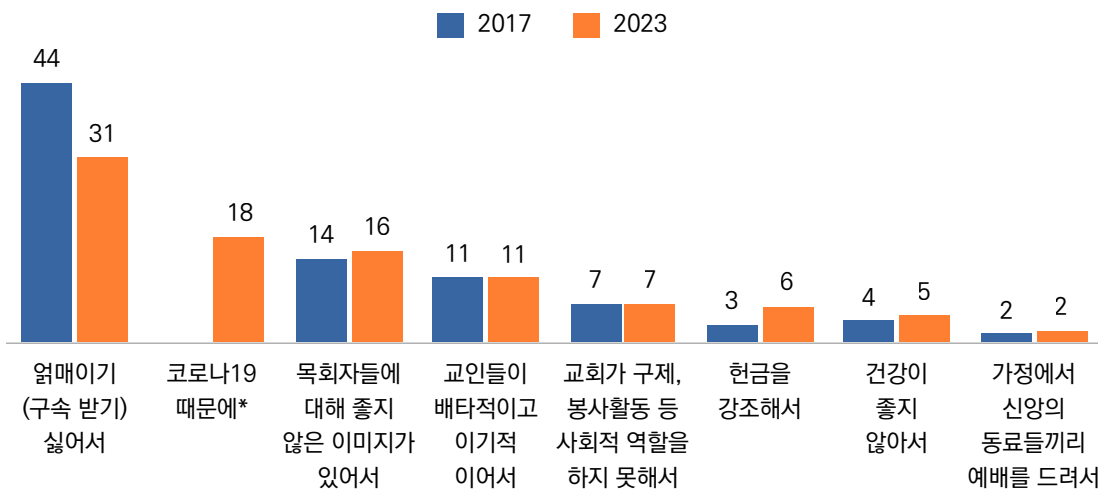
[그림] 교회 비출석 개신교인(가나안성도) 추이 (개신교인, %)



### ◎ 가나안성도 급증, 코로나 요인 크게 작용!

- ▶ 가나안성도에게 교회 비출석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엄매이기 싫어서’가 3명 중 1명꼴(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등의 순이었다.
- ▶ 2023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는 보기로 새롭게 제시했는데 이 요인이 전체 2번째로 응답되어 가나안성도 급증에 코로나 요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가나안성도의 교회 비출석 이유 (가나안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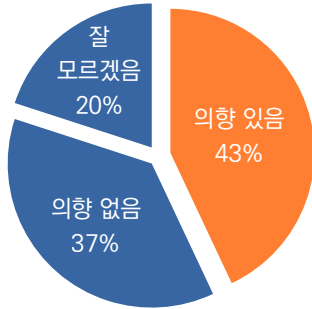


\*2023년 조사항목 신규 추가

## ◎ 60세 이상 가나안성도 절반, ‘다시 교회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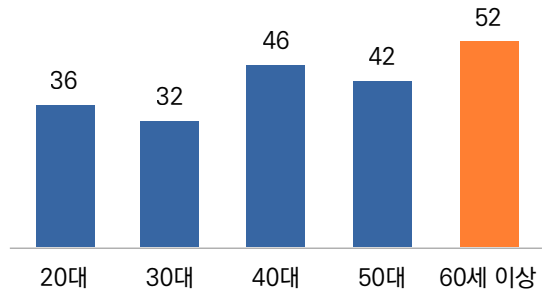
- ▶ 가나안성도들의 교회 재출석 의향은 어느 정도일까? 다시 교회를 출석할 ‘의향이 있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은 43%, ‘의향이 없다’ 37%로 가나안성도 10명 중 4명 정도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의향을 보였다.
-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가나안성도의 재출석 의향률이 52%로 나타나 타 연령대 대비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가나안성도의 교회 재출석 의향\* (가나안성도)



\*4점 척도임

[그림] 연령별 가나안성도 교회 재출석 의향 ('의향 있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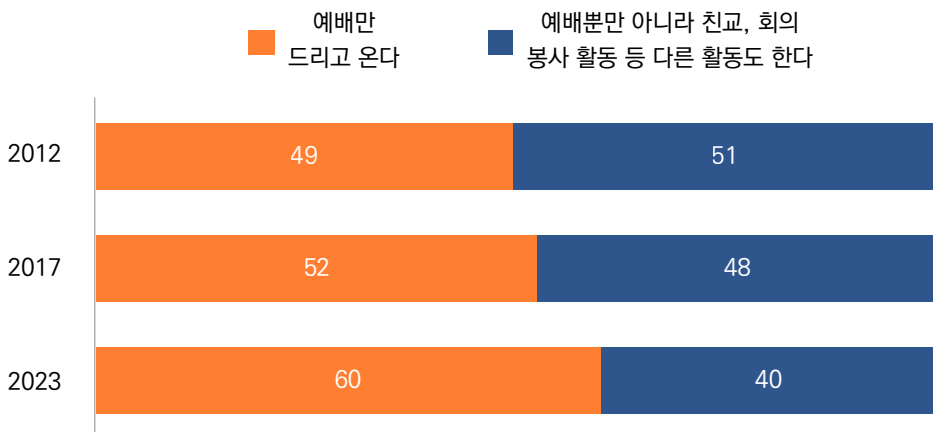
## 02

### [개신교인의 교회 활동]

## 개신교인 10명 중 6명,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온다’!

- ▶ 출석 교인을 대상으로 주일 교회 활동에 대해 물은 결과, 2023년 기준 ‘예배만 드리고 온다’ 60%, ‘예배뿐만 아니라 친교, 회의, 봉사활동 등 다른 활동도 한다’ 40%로 예배 이외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교인이 10명 중 6명 꼴로 나타났다.
- ▶ 조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예배 외 다른 활동도 하는 경우’는 2012년 51%에서 2023년 40%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예배 외 친교, 봉사활동 등 신앙 활동의 감소는 헌신자 감소와 공동체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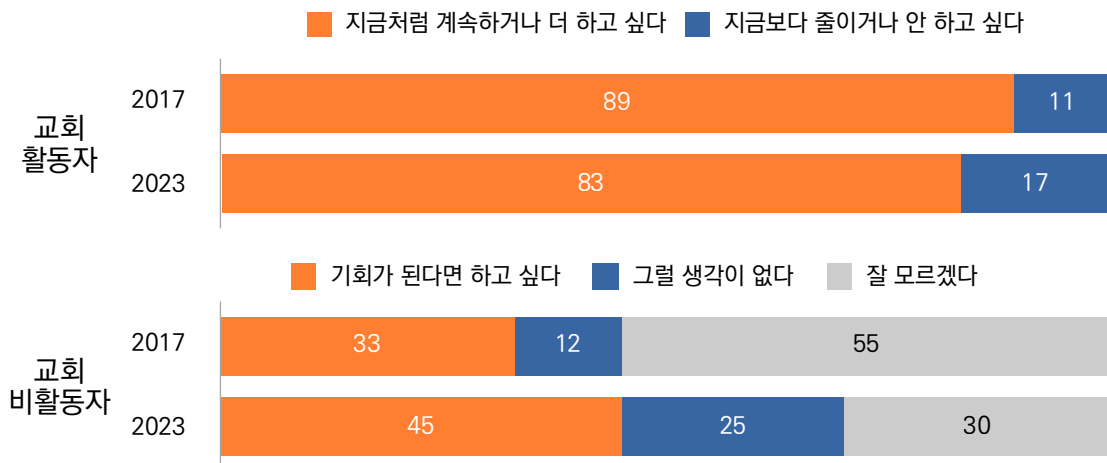
[그림] 주일 교회 활동 (교회 출석 개신교인, %)



## ◎ 교회 비활동자의 45%, ‘기회가 된다면 교회 활동 하고 싶다’!

- ▶ 현재 교회에서 예배 이외 친교, 사역,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교인과 아무 활동하지 않는 교인에게 각각 향후 교회 봉사 또는 사역 활동 의향에 대해 물었다. 먼저 ‘교회 활동자’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83%)이 ‘지금처럼 계속하거나 더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줄이거나 안 하고 싶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 ▶ 반면, 비활동자의 절반 정도(45%)는 기회가 된다면 교회 봉사 또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7년 조사 대비 12%p 증가한 수치이다. 교회 봉사 또는 활동에 대한 비활동자의 향후 의향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향후 교회 봉사 또는 활동 의향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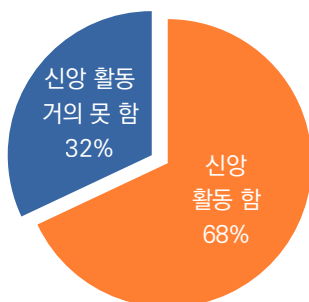
# 03

## [개신교인의 신앙 생활]

### 개신교인의 신앙 활동, ‘대면 모임’보다 ‘매체’ 이용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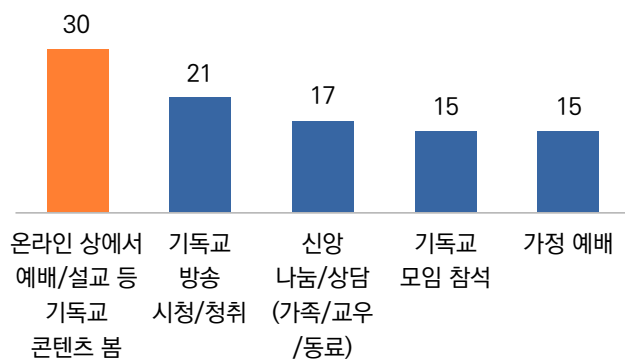
- ▶ 지난 1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 내용을 묻은 결과, 신앙 활동 경험이 있는 개신교인은 10명 중 7명(68%) 정도였고, 이들이 행한 신앙 활동의 내용으로는 ‘온라인 상에서 예배/설교 등 기독교 콘텐츠 봄’이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독교 방송 시청/청취’ 21%, ‘신앙 나눔/상담’ 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 개신교인의 신앙 활동을 보면 ‘직접 참여하여 나누는 것’보다 ‘매체에서 보고 듣는 활동’이 많은 편이었다. 직접적·대면적 활동보다는 간접적·비대면적 형태의 활동이 절반 이상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일주일간 신앙 활동 여부 (개신교인)



[그림] 일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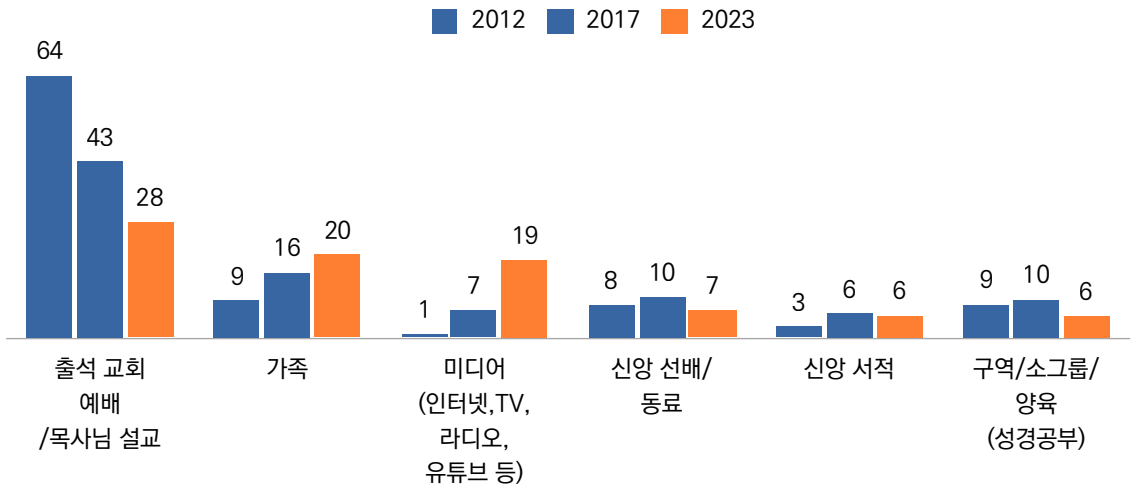
(신앙 활동 하는 개신교인, 중복응답, 상위 5위, %)



## ◎ 신앙 성장 도움 요인, ‘예배/설교’ 줄고 ‘미디어’ 가파르게 상승!

- ▶ 개신교인은 무엇을 통해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을까? ‘출석교회 예배/목사님 설교’를 28%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가족’ 20%, ‘미디어’ 19% 순이었다.
- ▶ ‘출석교회 예배와 목사님 설교’ 요인은 2012년 64%에서 2023년 28%까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디어’와 ‘가족’을 꼽은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디어’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7%에서 2023년 19%로 3배 가까이 급증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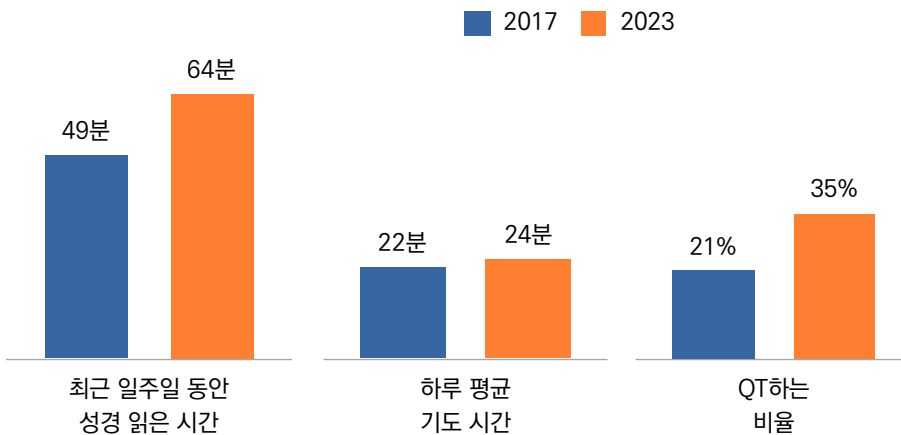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 (개신교인, 상위 6위, %)



## ◎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개인 경건 시간 늘어!

- ▶ 개인의 경건 시간(개신교인 대상)을 살펴보기 위해 ‘성경 읽은 시간’, ‘기도 시간’, ‘QT 유무’를 각각 물었다. 그 결과, 개신교인은 일주일 평균 성경을 64분 읽고, 하루 평균 24분 기도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QT를 하는 개신교인은 35%, 즉 3명 중 1명 남짓으로 조사됐다.
- ▶ 3가지 개인 경건 활동 시간은 2017년 대비 모두 증가했고, 특히 ‘성경 읽은 시간’과 ‘QT 하는 비율’이 높아진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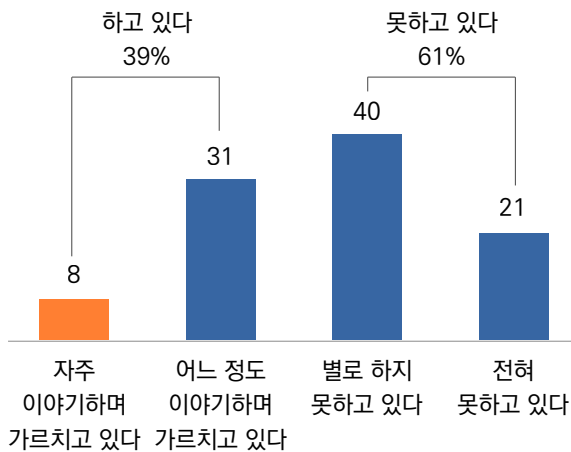
[그림] 개인 경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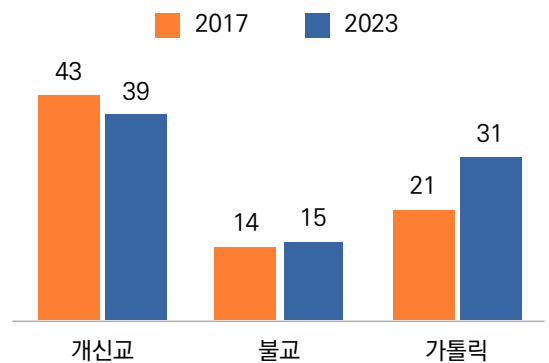
## ◎ 개신교인 부모 8%만이 실제 '자녀 신앙 교육'을 하는 것으로 추정

- ▶ 자녀가 있는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자녀 신앙 교육 여부를 물었다. 개신교인의 경우 '하고 있다 (자주+어느 정도)' 비율이 39%로 나타났는데, 그 중 '자주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8%에 불과했다. 삶과 생활이 곧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특성임을 간주한다면 실제 신앙교육을 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셈이다.
- ▶ 평소 자녀 신앙 교육을 하는(자주+어느 정도)비율은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가장 높았으나 5년 전 대비 4%p 감소했다.

[그림] 개신교인의 자녀 신앙 교육 정도  
(개신교인 중 자녀 있는 자, %)



[그림] 자녀 신앙 교육 '하고 있는' 비율  
( '자주+어느 정도' 비율, 종교인 중 자녀 있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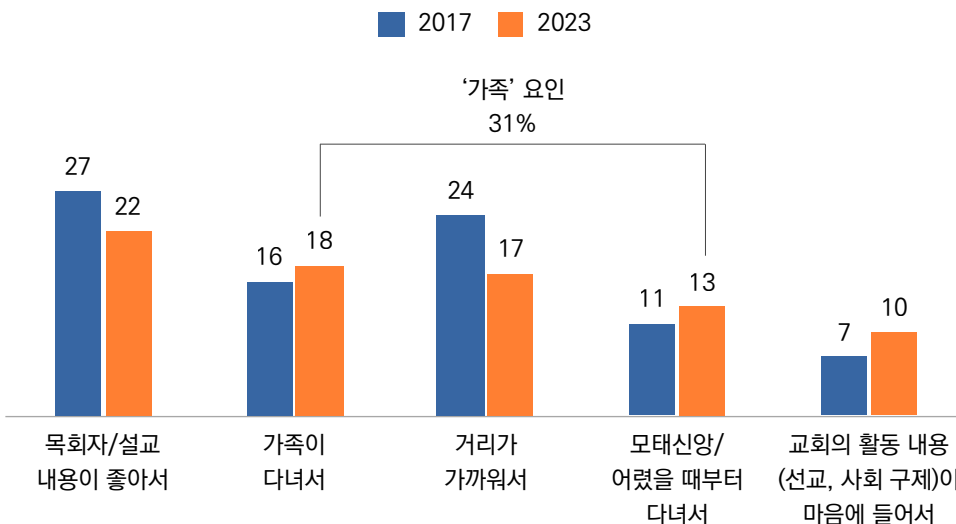
# 04

## [출석 교회 평가]

### 출석교회 선택 이유, '목회자 설교' 영향 줄고 '가족' 요인 증가

- ▶ 개신교인에게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선택한 이유를 묻은 결과, '목회자/설교 내용이 좋아서'가 2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가족이 다녀서', '거리가 가까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 ▶ '가족이 다녀서'와 '모태신앙/어렸을 때부터 다녀서'를 '가족' 요인으로 간주한다면 '목회자 설교' 요인은 감소하고 '가족' 요인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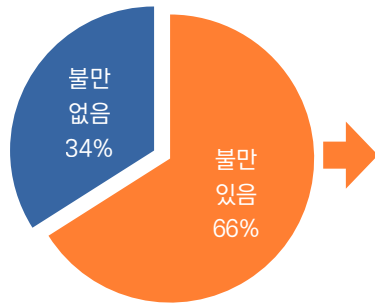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 선택 이유 (개신교인 중 교회 출석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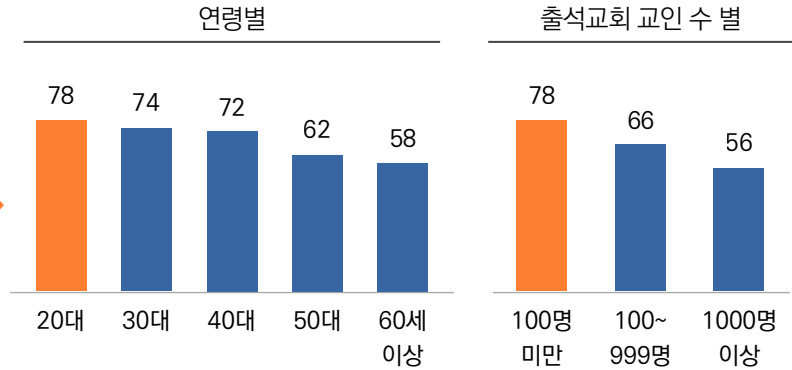
## ◎ 현 교회 불만, ‘젊은층, 소형교회’에서 높아!

- ▶ 출석 교인을 대상으로 현 교회에 대한 불만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불만 있음’이 66%로 출석 교인 3명 중 2명은 교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출석교회 교인 수가 적을수록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현 교회 불만 여부  
(교회 출석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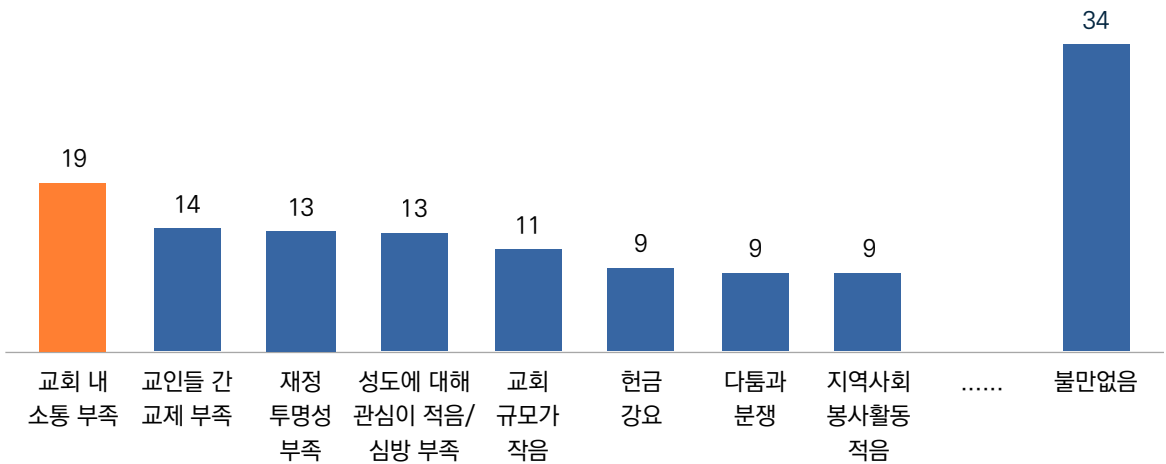
[그림] 응답자 특성별 현 교회 불만 있는 비율 (교회 출석 개신교인, %)



## ◎ 현 교회 불만 사항, ‘교회 내 소통 부족’ 가장 많아!

- ▶ 교회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는 ‘교회 내 소통 부족’(19%)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 다음으로 ‘교인들 간 교제 부족’, ‘재정 투명성 부족’ 등의 순이었다. 2위로 응답한 ‘교인 간 교제 부족’도 넓게 보면 ‘소통 부족’과 연결되어 있어, 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소통 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그림] 현 교회 불만 사항 (불만 사항 있는 교회 출석자, 중복 응답, 상위 8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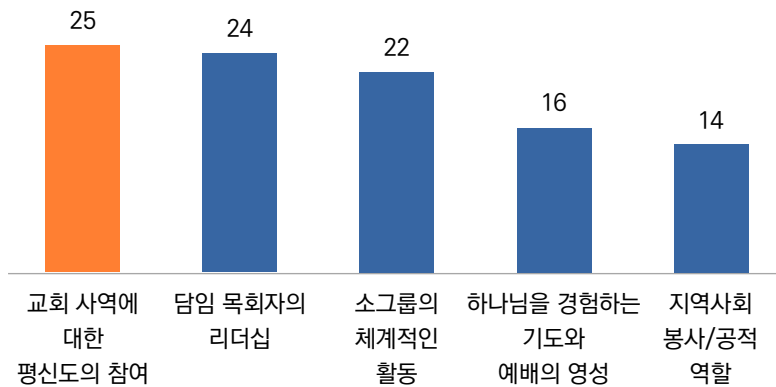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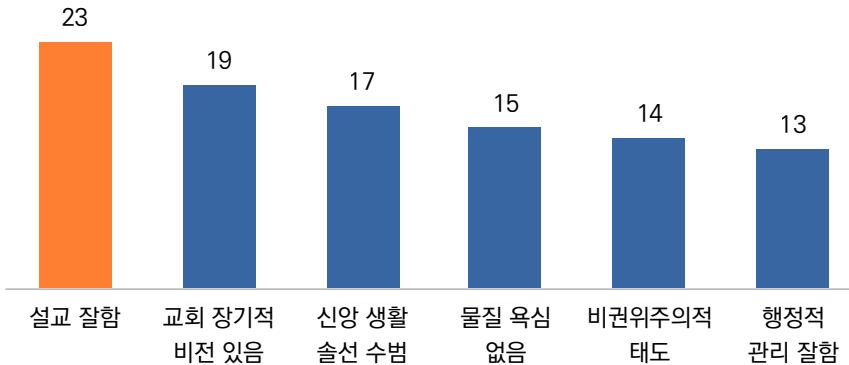
## ◎ ‘평신도의 교회 사역 참여’, 교회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미쳐

- ▶ 현 교회와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각각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 출석교회 만족도에는 ‘교회 사역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 ‘소그룹의 체계적인 활동’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 담임 목회자 만족도 요인으로는 ‘설교’가 23%로 가장 컸고, 이어 ‘교회의 장기적 비전’, ‘신앙생활 솔선수범’ 등의 순이었다.
- ▶ 종합해 보면 ‘평신도의 참여’와 ‘설교뿐 아니라 교회 비전과 인품’을 갖춘 목회자를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음을 만족도 질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림] 현 교회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향력 비율, %)



[그림]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향력 비율, %)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기법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현 교회/목회자에 대해 만족한다'를 종속 변수, 각 항목들을 독립 변수로 두고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함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는 3차 조사 이후 5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5차 조사(2023)는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2023년 1월에 조사를 했다.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개신교인의 예배와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막 지난 직후의 조사라서 대부분의 결과에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종교와 신앙에 대한 인식은 2012년을 변곡점으로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넘버즈 206호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인식’, 207호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편에서 일부 읽을 수 있었다. 이번에 다룬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욱 굳어지고 심화하는 징후들이 여러 포착되었다.

첫 번째 징후는 ‘탈교회화’이다. 2012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개신교인, 즉 ‘가나안성도’는 11%였지만 2023년에는 그 비율이 29%까지 증가하였다. 개신교인 10명 중 3명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가나안성도 증가율을 단순히 그대로 적용한다면 10년 후에는 개신교인의 절반 이상이 가나안성도라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 탈교회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두 번째 징후는 ‘온라인 신앙화’이다.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으로 ‘출석교회의 예배/설교’는 2012년 64%에서 2023년 28%로 급감했지만, ‘미디어’는 1%에서 19%로 급증했다. 지난 일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도 ‘신앙 나눔’, ‘모임 참석’, ‘가정 예배’보다 ‘온라인상에서 예배/설교 콘텐츠 봄’과 ‘기독교 방송 시청/청취’가 더 높았다. 개인 경건 활동 중 ‘성경 읽는 시간’과 ‘QT 하는 비율’은 2017년 조사 대비 증가했는데 이는 온라인이나 미디어(앱)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징후는 ‘교회 신앙 활동의 약화’이다. 주일 교회 활동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비율이 60%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 조사 대비 11%p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교회에서 친교, 사역,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자가 ‘지금보다 줄이거나 안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년 전 조사 대비 6%p 증가한 1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 종교화’이다. 현재 출석교회를 선택한 이유로 꼽은 ‘목회자/설교 내용이 좋아서’(22%), ‘거리가 가까워서’(18%)는 5년 전 조사 대비 하락하고 있는 반면, ‘가족이 다녀서’(18%), ‘모태 신앙/어렸을 때부터 다녀서’(13%)는 증가하고 있었다. 교회를 선택 이유로 ‘가족’ 요인이 가장 높은 것이다. 수동적인 신앙 태도로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정 신앙 교육과 자녀 양육으로 교회 부흥을 강화해 볼 수도 있는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려되는 결과도 있지만 교회 출석과 활동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되는 결과도 존재했다. 가나안성도에게 교회에 재출석할 의향을 물은 결과 ‘의향 없다’고 단정한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 외 활동을 안 하는 출석자에게 향후 교회 봉사 또는 활동 의향을 물은 결과, 45%가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는 5년 전 조사 대비 12%p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관여도, 즉 관심과 몰입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따라서 약화할 것이며 교회의 여러 행사 혹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참여자, 봉사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교회에 대한 관여도가 약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는 관계성을 증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목회자와 교인, 교인과 교인 사이의 두터운 관계망 형성을 통해 그 관계망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와의 연결성을 끊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책은 특히 소형교회에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인 간의 관계망이 잘 형성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관계,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며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교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